

# 행복국가와 시대교체 : ‘잘사니즘’의 행복정치

이진복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2025. 4.



# 행복국가와 시대교체 : ‘잘사니즘’의 행복정치

이 진 복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요약 .....	i
<b>1. 행복국가 .....</b>	<b>1</b>
(1) 복지국가를 넘어서 .....	1
○ 복지국가의 한계 .....	1
○ 더불어 잘 사는 나라 .....	3
(2) 글로벌 초일류 국가 .....	6
○ ‘행복의 역설’을 넘어서 .....	6
○ 4차 산업혁명 .....	7
<b>2. 시대교체 .....</b>	<b>10</b>
(1) ‘선진국 함정’을 넘어서 .....	10
○ ‘선진국 함정’ .....	10
○ 대한민국 시대교체 .....	11
(2) K-시대 .....	12
○ K-행복 트렌드 .....	12
○ K-이니셔티브 .....	16
<b>3. 행복정치 .....</b>	<b>17</b>
(1)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 .....	17
○ 공감정치 .....	17
○ ‘잘사니즘’ .....	20

(2) 행복정책 .....	24
○ 행복실감 정책 .....	24
○ 행복조성 정책 .....	25

## 요 약

### 1. 행복국가

#### (1) 복지국가를 넘어서

##### ○ 행복국가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

- 행복국가는 물심양면의 전국민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행복국가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 행복의 주관적 감정은 개인 단독의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공감감정,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즐거움

#### (2) 글로벌 초일류 국가

##### ○ 행복국가는 고요한 은둔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초일류 국가

- 글로벌 초일류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행복경제를 발전시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융합한 스마트파워 강국
-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상한선, GDP 임계점이 있다는 ‘행복의 역설’에 대한 논쟁은 최신연구에 의해 부정. 행복국가 실현에서 돈은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한 조건

### 2. 시대교체

#### (1) ‘선진국 함정’을 넘어서

##### ○ 행복국가, ‘더불어 잘 사는 글로벌 초일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선진국 함정’을 넘어서야

-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1997년 IMF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 국난의 ‘3대 국난’을 맞아 성공적인 산업혁명 전환으로 극복, 혁명적 열정을 분출하여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 식민지 없이 자수성가,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최초의 국가

- ‘1차 한강의 기적’이 절대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잘살아 보세’였다면, ‘2차 한강의 기적’은 민주화와 함께 정보화와 복지국가를 이루는 ‘더불어 사세’의 선진국 실현
- 이제 추적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 선진국을 넘어 행복국가를 실현하는 K-시대 개척, ‘더불어 잘 살아보세’의 ‘3차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

## (2) K-시대

○ 행복국가는 ‘K-시대’ 실현. 온 국민의 K-행복 트렌드 확산, 진영의 한을 푸는 국내 중심 자체적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높아진 자긍심에 기초, 온 국민의 흥을 북돋는 코리안 드림

- 잘 살고자하는 온 국민들의 행복추구 열망 폭발. Well-Bearing(잘 낳음), Well-Being(잘 삶), Well-Aging(잘 늙음), Well-Dying(잘 죽음)의 ‘100세 시대’ 전생애 행복추구 K-뉴트렌드
- 행복국가는 추격하는 개발도상의 ‘중진국(developing nation)’과 추월한 이미 발전된 ‘선진국(developed nation)’을 넘어 글로벌 표준을 재설정하는 ‘선도국가(leading nation)’ 비전
- K-시대는 이미 여러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프론티어를 개척하고 있는 ‘K-이니셔티브’의 혁명적 확산. K-이니셔티브의 단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일신하고 있는 ‘K-브랜드’

## 3. 행복정치

### (1)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

○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지 않고는 행복국가 실현은 불가능, 특히 12.3 내란사태 이후 두 국민으로 분단된 사실상 헌정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

- 극단의 정치를 강행하는 민심불감, ‘존재감 정치’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공감 정치’로 정치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이재명 대선후보의 행복정치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국가, ‘진짜 대한민국’을 목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 (2) 행복정책

- 행복실감 정책이 밑으로부터의 미시적 생활 정책이라면, 행복조성 정책은 국민적 행복을 증진하는 위로부터의 거시적 생태계 정책
  - 행복실감 정책은 국민적 불행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고 행복감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섬세하고 신속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체감도 향상
  - 포괄적 행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민총행복기본법’은 행복조성 정책의 시작이자 행복국가 실현의 토대



# 행복국가와 시대교체 : ‘잘사니즘’의 행복정치

이 진 복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1 행복국가

### (1) 복지국가를 넘어서

#### ○ 복지국가의 한계

- 복지는 원래 물질양면의 안녕감(wellbeing) 보장
  - 복지(welfare)와 행복(happiness, wellbeing)은 심리적 안녕감 전제, 의미상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았음
- 복지는 행복 실현이 목적, 물질(현금, 현물) 급여는 수단. 그러나 목적과 수단이 전도
  - 복지정책이 재정정책으로 전도. 재정지출의 양을 늘리는 수단을 복지의 목적으로 인식시, 행복을 어떻게 증진시킬지에 대한 아이디어 억압
- 복지가 계급복지(class welfare)로 제도화. 좌파의 부자적대와 우파의 서민경시의 계급전쟁(class warfare)으로 전도
  - 복지가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보호로 제도화. 복지 수혜자가 사회의 실패자 또는 열등자로 ‘낙인’, 이등시민으로 전락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사회분열 야기
  - 복지재정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면서 복지제도의 불안정성 심화. 좌파는 국가복지 강화, 우파는 복지국가 해체

#### ○ 복지의 가치변동

- ‘복지’의 긍정적 의미가 퇴색하면서 ‘행복’과 분리. 행복이 복지를 포괄하는 더 높은 가치로 재정립
  - 복지는 물질적·경제적 의미의 ‘생계’ 보장만을 가리키게 되면서 탈물질적·정신적 의미의 ‘생활’ 행복 개념과 분리

- 1970~80년대 이후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적 가치로 삶의 의미에서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 진행. 조용한 혁명은 '행복 혁명'

-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1977년 동명의 저서에서 세대교체와 함께 전반적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생존과 생계, 권위와 강제 등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던 사회가 점차 자아실현과 삶의 질, 자율과 참여 등 '탈물질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회로 변해가는 광범한 문화변동을 실증적으로 분석
- 선별적·물질적 복지 개념이 격하·주변화되고 보편적·탈물질적 행복 개념이 격상·중시되면서 복지를 행복의 관점에서 재구성

-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는 GDP의 물적 성장과 복지를 포함한 발전을 행복으로 척도 확대

- 1인당 GDP와 함께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삶의 선택의 자유, 부패인식, 관용(기부) 등 포함

#### ○ 대한민국은 '불행국가'<sup>1)</sup>

- 2025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은 행복순위 58위의 불행국가
  - 1인당 GDP(27위), 건강 기대수명(4위)은 양호하지만 사회적 지원(85위), 삶의 선택의 자유(102위), 부패인식(56위), 관용(84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실정
  - 한국은 계속 행복순위 50위권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18년(57위), 19년(54위), 20년(61위), 21년(62위), 22년(59위), 23년(57위), 24년(52위), 25년(58위)
- 핀란드는 8년 연속 1위. 덴마크(2위), 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 네덜란드(5위), 노르웨이(7위) 등 북유럽 소국이 여전히 수위권 차지
- 인구 5천만 이상 선진국 순위는 독일(22위), 영국(23위), 미국(24위), 프랑스(33위), 이탈리아(40위), 일본(55위) 순으로 한국은 여전히 꼴등
- 멕시코(10위), 브라질(25위), 아르헨티나(42위) 보다 여전히 행복순위에서 뒤처져 있고, 베트남(46위), 태국(49위), 필리핀(57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

-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복지지출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행복을 기준으로 하면 '행복후진국'

- GDP 대비 복지비용은 일본 수준. 지난 10년간 복지지출(2009년~2019년) 연평균 9.3% 급증. OECD 평균 증가율보다 2.3배 높았음

1) UN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25*(2025.3.20.)

-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지만 출생·이혼·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세계 1~3위의 세계 최악 ‘헬조선’

#### ○ ‘우울증 공화국’

- 한국은 우울증 유병률 OECD 1위(36.8%). 그러나 우울증 치료율은 최저(메디게이트뉴스, 2021.5.27.)
- 심리학회 조사,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최근 2주간 적어도 한 번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
  - 조사 결과 최근 2주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문항에 8.7%는 ‘항상·자주 그렇다’고 답했다. 또 11.7%는 ‘때때로 그렇다’, 22.2%는 ‘드물게 그렇다’고 응답해 42.6%가 최소한 한 번은 심리적으로 쫓기고 내몰리는 상태에 처한 것으로 집계
  - 3명 중 2명은 번아웃(35.8%)·우울증(33.1%)·무기력감(20.1%)과 심각한 불안감(13.1%), 자살 충동(11.8%) 등 정신건강 문제를 한 개 이상 겪은 경험이 있음
  - 경제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가 50.9%로 가장 많았고 직업(34.3%)과 신체 건강(26.8%)이 뒤를 이었음.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특히 대인 관계(13.9%)에 이어 가족 부양(13.2%), 자녀 양육(12.0%), 부부 관계(10.0%) 등 가족 내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국가의 국민 정신건강 책임·관리 필요성에 절대다수(75.2%)가 찬성. 국가의 국민 정신건강 관리 만족도에 만족은 14.9%에 불과, 불만족은 33.3%(중앙일보, 2024.6.22.)

#### ○ 더불어 잘 사는 나라<sup>2)</sup>

- 행복국가를 쉽게 풀어쓰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 순우리말로 ‘잘사는(rich)’ 나라는 부자국가. ‘잘 사는(happy)’ 나라는 행복국가
  - 행복국가는 물질양면의 전국민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행복국가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 행복의 주관적 감정은 개인 단독의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공감감정,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즐거움
  - 행복은 본성적 단순감정(simple emotion)으로서 ‘기쁨(pleasure, 喜·悅)’을 넘어서는 본성적 공감감정(empathetic emotion)인 ‘즐거움(enjoyment, 樂)’
  - 유아적 ‘단순감정’으로서 ‘기쁨(쾌락)’은 만족 후 즉각 소멸되지만, 자아들의 관계 속에서 공감하면서 일어나는 ‘공감감정’인 ‘즐거움(행복감)’은 공감하는 자아들의 마음 속에서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반향. 시공을 넘어서 확산되고 회자

2) 황태연.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 국가변동의 일반이론> (지식산업사, 2025). Michael Argyle. *The Psychology of Happiness* 2<sup>nd</sup> Edition(Routledge, 2001). James Griffin. *Well-Being : Its Meaning, Measurement and Moral Importance*(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행복과 쾌락의 차이<sup>3)</sup>

- ‘행복’은 복수적 사람끼리 느끼는 기쁨·재미·예술미·일체감과 도덕적 뿌듯함에 대한 ‘공감’에서 생겨나는 ‘공감감정’으로서의 ‘즐거움’
  - ‘즐거움’은 ① 노동·음식·재물을 베풀고 나눔으로써 욕구충족의 기쁨을 같이하는 자아들끼리 공감적으로 공유하는 것, ② 사회적 유희행위의 재미를 어울리는 자아들끼리 공감하는 것, ③ 노래·작품·공연·연기의 예술미를 공연자와 관중이 서로 나누며 공감하는 것, ④ 자기의 덕행에 대한 도덕적 자찬감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거나 자기의 덕행에 공감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⑤ 사랑·우정·연대의 어울림으로부터 나오는 일체감을 공감하는 것 등에서 나옴
- 즐거움의 공감감정은 마음속에 반향으로 오래 남는 현상으로 시공과 세대를 초월한 공감 속에서 ‘무한반향’으로 뻗어갈 수도 있음
  - 가령, 예술작품과 도덕적 선행(덕행)에 대한 찬양과 미담의 공감적 ‘무한반향’은 ‘예술작품의 미학적 공감’과 ‘덕행의 도덕적 공감’ 속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시공을 초월해 광범하게 확산되고 오래도록 공감되는 현상
  - 고전의 예술미와 위인의 위대한 공덕은 국민적·인류보편적 행복감 또는 즐거움의 원천으로서 공감적 무한반향을 일으키며 반영구적으로 회자
- ‘쾌락’은 개인적 자아가 물질 ‘대상’이나 사태·상황을 통해 욕구(식욕·물욕·성욕·진리욕·호기심·만남욕구 등)를 충족시킬 때 잠시 일어나는 ‘기쁨’
  - ‘기쁨’은 공감이 배제된 단순감정으로서 욕구충족의 유아적 만족감에 불과하기에 무상하고 덧없는 것

- 물질적 ‘복지’의 심리적 목적은 과거와 현재의 ‘안녕감’과 미래의 ‘희망’으로서 보장되는 행복감
  - 심리적 즐거움으로서 행복은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공감감정을 가능케 하는 관계지향 ‘사회적 자본’과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역량강화 ‘인적 자본’으로 현상
  - 대상화된 타자 속의 나가 아니라 자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즐기는 사람이 최고.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 행복국가의 행복감은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고요한 안녕감을 강조하는 부탄(2024년 1인당 GDP 4천68 달러, 인구 77만5천 명) 모델을 넘어 희망과 융합된 ‘역동적 안녕감’ 중요

3) 황태연, <창조적 중도개혁주의 : 증오와 적대 정치의 종식을 위하여> (생각곰기, 2024)

- 역동적 안녕감은 롤리코스터와 같은 ‘재미’로 경험. 노잼’과 ‘꿀잼’은 행복감에서 천양지차. ‘재미’는 최고의 행복감,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최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 의식주가 확보되면 인간은 놀기 위해 일하고 또 노는 것이 사는 것. 인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놀기 위해 태어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유희적 인간’, 아니 ‘유희적 동물’

○ ‘유희적 행위’<sup>4)</sup>

- 유희하는 사람들은 놀이와 재미, 유희적 행복을 산출하는 고마운 사람이거나 재미와 유희적 즐거움을 즐기는 행복한 사람
- ‘유희적 행위’의 본질은 생명력과 각종 능력의 자유로운 분출 또는 자유분방한 발휘. ‘재미’는 오직 ‘유희적 행위’로부터만 나옴
- ‘재미’는 공리적 행위(노동·학습·사업경쟁)를 통한 욕망의 충족에서 나오는 ‘기쁨’이나, 예술적 행위나 예술작품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나 도덕적 행위의 ‘선’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가치
- 나아가 유희의 최고 형태로서의 게임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볍게 만들고 재미로 둔갑시켜 주기 때문에 노동, 예술, 도덕행위 등은 대개 유희 형태로 조직되어 있음
- ‘재미’의 본질은 유희적 행위의 중화(中和, 균형과 조화)에 대한 흡족한 느낌, 곧 유희적 행위의 짜임새와 변동을 구성지고 아기자기하게 느끼는 긍정적 감정

-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누구도 외롭지 않게 정을 나누고, 자신만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재주를 갖는, 그래서 한을 흥으로 극복하는 신명나는 자유만발 대한민국
- 신명나는 자유만발 대한민국은 활력있는 대한민국. 돈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특권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노력하는 사람, 실력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활력’있는 대한민국

4) 황태연. <놀이하는 인간> (지식산업사, 2023)

## (2) 글로벌 초일류 국가

### ○ ‘행복의 역설’을 넘어서<sup>5)</sup>

-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상한선, GDP 임계점이 있다는 ‘행복의 역설’에 대한 논쟁은 최신연구에 의해 부정
  -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은 중진국 함정(1인당 GDP 1만 달러)을 넘어 소득이 일정선(1만5천 달러)에 이르면 행복과 소득의 연관성이 없어져 더 이상 소득 증진이 중요하지 않다는 통설로 활용
- 행복국가 실현에서 돈은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한 조건. 선진국(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에 진입하더라도 소득 증진은 행복의 필요조건
  -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계속 행복도 증가
  - 단, 평소 불행을 느끼는 일부(15%)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다면 더 이상 소득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미 돈을 많이 버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으로 불행감을 줄일 수는 없음
  - 그러나 10만 달러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짐.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커짐

### ○ ‘행복의 역설’ 최신연구

- 행복과 소득의 관계에서 개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된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당연시되었지만 최신 연구는 이를 부정
-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소득 상한선, GDP 임계점에 대한 논쟁
  - 경제학자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은 1974년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더 이상 국민행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임계점으로 1인당 GDP 1만 5천 달러 수준 설정
  - 2010년 카너먼(Daniel Kahneman)과 디튼(Angus Deaton)의 연구는 임계점을 연소득 7만 5천 달러로 상향<sup>6)</sup>
  - 2021년 킬링스워스(Matthew Killingsworth)의 연구는 행복 상한선의 존재 부정. 7만 5천 달러를 넘어가더라도 행복은 소득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
- 임계점이 있다는 카너먼과 없다는 킬링스워스가 합동 연구, 2023년 미국 국립과학원 논문에서 이스털린의 역설을 부정하는 연구결과 도출<sup>7)</sup>

5) Luigino Bruni and Pier Luigi Porta. *Economics and Happiness : Framing the Analysis*(Oxford University Press, 2007), Bruno S. Frey and Alois Stutzer. *Happiness and Economics :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6) Daniel Kahneman and Angus Deaton.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 대다수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증가
- 단, 평소 불행을 느끼는 일부(15%) 사람들의 경우, 일정 금액(세전 약 1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다면 그 이상 소득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들이 겪는 불행이 감소하지는 않음
-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특별히 ‘불행’이 매우 높은 사람들의 경우는 ‘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의 정도가 정체
- 인간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돈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소득 크기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행복, 불행)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행복감 하위(15%) 집단의 경우, 행복은 10만 달러까지 소득과 함께 증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
- 행복감 보통(55%) 집단은 행복이 소득과 선형적으로 증가
- 행복감이 높은 집단은 소득 10만 달러를 넘어서면 오히려 행복의 정도가 가속화

#### ○ 4차 산업혁명<sup>8)</sup>

- 행복국가는 고요한 은둔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초일류 국가
  -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행복국가의 전제조건은 글로벌 초일류 국가
- 글로벌 초일류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행복경제를 발전시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융합한 스마트파워 강국
  - 행복을 구현하는 비물질적 부가 물질적 부보다 더 중요해지는 추세는 IT 정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에서 본격화, AI 지능화를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전면화
  - 비물질적 부는 통신·서비스, 지식·정보, 문화와 미학적 가치(패션·취향·영상·오락·향락), 안전·환경·보건·스포츠·레저·웰빙 등에서 ‘행복’ 구현

Emotional Well-Being“(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0.8.4.)

- 7) Matthew A. Killingsworth, Daniel Kahneman and Barbara Mellers. “Incom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nflict Resolved”(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22.11.29.), 아로아.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까?”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2024.1.24.)
- 8) Robert D. Atkinson and David Moschella. *Technology Fears and Scapegoats: 40 Myths About Privacy, Jobs, AI, and Today’s Innovation Economy*(Palgrave Macmillan, 2024), Robert D. Atkinson and Aurelien Portuese. “Platforms are the New Organizational Paradigm”(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23), 마셜 벤 앨스타인, 상지트 폴 초더리, 제프리 파커. 〈플랫폼 레볼루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현경 역, 부키, 2017), Bruno S. Frey. *Happiness : A Revolution in Economics*(The MIT Press, 2008), John T. Haworth. *Work, Leisure and Well-Being*(Routledge, 1997), 황태연.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 국가변동의 일반이론〉(지식산업사, 2025)

- 비물질적 제품을 생산하는 지식·정보·교육·문화·예술·놀이(유희)·의료 서비스산업은 물질적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보다 비중이 더 커졌음
- 21세기 글로벌 초일류 국가는 무형의 비물질적 가치의 생산과 유통에 인력의 80% 이상을 투입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정보·문화·재미국가
- 4차 산업혁명에서 국부의 중심개념이 빠르게 ‘하드 재부(hard wealth)’의 ‘물질적 부’에서 ‘소프트 재부(soft wealth)’의 ‘비물질적 부’로 대전환, ‘행복 경제’ 전면화
  - 행복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브랜드 플랫폼 경제’에서 실현. 브랜드는 소비자의 웰리티에 대한 ‘믿음’으로 행복감 전제,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의 관계적 알고리즘으로 맞춤형 행복감 최적화
  - 행복감의 고객 경험을 생산·유통하고 소비하는 것이 행복경제의 본질. 물질적 부가 브랜드가 되어 나만의 ‘갬성’을 표현, 명품이 되는 비물질적 가치로 전환되고, 플랫폼이 기본적 비즈니스가 되면서 단순 쾌락을 넘어 관계의 행복감 향유 최대화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창업을 넘어 창직(創職)의 혁신적 파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을 창조하는 ‘성덕(성공한 덕후)’의 행복추구 크리에이터 대중화
  - ‘나의 취미와 흥미가 직업이 되는 경제’, ‘덕테크(덕질+재테크)’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행테크(행복+재테크)’ 생태계 창출
  - 탈물질적 지식·교육·정보·문화·예술·관광·유희(유희·스포츠·오락·레저·게임)의 소프트 산업이 경제의 주력업종이 되고 전통 제조업 하드 산업이 혁신 기술과 접목되면서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정보화·지식화·문화화·미학화·보험화되고 있음
  - 유희 자체가 노동을 위한 휴식 또는 휴양이라는 부차적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미와 돈이 융합된 탈물질적 행복산업이 되고 있음
  - 소비가 생존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시대 전면화. 자신을 표출하는 브랜드가 중시되는 소비에서 중요한 것은 가성비(價心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물질소비를 넘어 의미소비이고, 갬성소비이며 나아가 재미소비
  - 또한 물질적 제조업 자체가 자동화를 넘어 AI 지능화. 물질적·역학적 하드웨어 장치 산업이 비물질적 소프트웨어 지식산업화와 융합, 스마트파워 행복경제 실현

#### ○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파워 행복경제

- 4차 산업혁명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융합한 스마트파워 행복경제 전면화
  - 문화·예술산업, 유희(엔터테인먼트+유희+오락)·레크리에이션·스포츠·리조트·숙박서비스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프로그램·콘텐츠)산업, 영상·정보·뉴스서비스·출판산업, 지식·교육서비스산업, 의료서비스산업 등 급팽창
  - 문화·예술·유희·지식·정보서비스산업은 산출되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하드파워 자산에 속하면서 문화·예술상품과 서비스의 소비효과 측면에서 소프트파워 자원에 속한 스마트파워 산업
  - 경제력 전체는 비물질적 소프트파워가 강화되고, 더욱 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행복경제 실현

#### ○ 산업혁명<sup>9)</sup>

- 산업혁명은 1차에서 4차까지 이어지는 연속 생산력 혁명. 일련의 새로운 산업혁명은 경제의 구조·기능·규칙을 변형시키는 신경제의 혁신 추동
  - 통상적으로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1760~1840년대 발생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철도의 대중적 확산을 바탕으로 한 기계화 혁명
  - 19세기 말에 개시되고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일관생산조립라인에 기반한 소품종 대량생산, 테일러 포드주의
  - 3차 산업혁명의 맹아는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개인용 컴퓨터(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 인터넷(1990년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본격화. 1990년대 '디지털 혁명' 또는 '정보화혁명'의 기술혁신을 통한 지식기반경제
  -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현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위시한 기하급수 기술의 융합혁신에 기반한 맞춤형 유연 대량생산(customized and flexible mass production)
  - 맞춤형 유연 대량생산은 글로벌 브랜드 플랫폼 경제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행복경제의 전면화. 코로나19 팬데믹은 언택트 라이프스타일 대중화 강제, AI혁명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9)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Foreign Affairs, 2015)

## 2

## 시대교체

## (1) '선진국 함정'을 넘어서

○ '선진국 함정'<sup>10)</sup>

- 행복국가, '더불어 잘 사는 글로벌 초일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선진국 함정'을 넘어서야
  - 중진국 함정이든 선진국 함정이든 정체는 기존 성장 방식을 고수하는 기득권 집착에서 비롯된 경제고도화 실패
  - '중진국 함정'이 양적 투입의 저가 경쟁에 매몰, 더 높은 산업혁명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지 못하는 경로의존이라면,
  - '선진국 함정'은 기존의 성공 공식에 안주, 4차 산업혁명으로 창조적 파괴를 하지 못하는 승자의 저주 때문
- 중진국 함정을 모범적으로 극복, 선진국으로 공인된 대한민국은 또 다른 혁신동력을 찾아야
  - 선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비관주의적 '뉴노멀' 담론을 돌파해야
  -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뉴노멀 돌파 담론으로 출현. 뉴노멀 퍼주기 담론을 혁파하기 위한 뉴체인지 창조적 파괴, 뉴챌린지 혁신 담론
- 선진국도 다 같은 선진국이 아님.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선진국은 가일층 성장. 실패한 선진국은 정체되어 선진국 함정에 걸린 상황
  - 4차 산업혁명 선도국, 미국은 1인당 GDP 9만달러(IMF 추산 2025년 8만9천6백8십 달러), 글로벌 초일류 국가 실현
  - 4차 산업혁명 실패국, 가령,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미국과 비슷했지만 3~5만 달러 정체
    - ※ 한국(3만6천24 달러)과 중국(1만3천3백6 달러)의 격차(2.7배)가 미국과 한국의 격차(2.5배)와 비슷
- 4차 산업혁명에 실패, '선진국 함정'에 빠진 선진국은 행복경제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혁신동력을 상실, 비관론이 팽배해진다면 의미에서 행복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 상실

10) 손진석, 홍준기,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플랜비디자인, 2023)

## ○ 대한민국 시대교체<sup>11)</sup>

### ○ ‘정치 재편성(political realignment)’<sup>12)</sup>

- 시대교체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떠오르는 유권자(rising electorate)를 중심으로 신주류 형성, 주류교체를 통해 완성
- 산업혁명 + 세대교체 = 시대교체. 신주류 형성을 통해 30년 이상 지속되는 ‘정치 재편성’
- 시대교체의 필요조건은 전체 사회에 대충격을 주는 국난과 혁명 등, 지각변형 사건의 경험을 공유, 나이가 들어도 가치관을 공유하는 세대교체의 동년배 효과(cohort effect)
- 충분조건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반영, 주도하는 국가 패러다임의 등장과 이를 체화한 중심정당의 연속집권, 당연한 여당의 출현

- 대한민국의 30년 주기 시대교체는 파국적 위기를 리셋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대전환, ‘정치 재편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산업혁명을 완수, 초과회복하면서 추격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
-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1997년 IMF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 국난의 ‘3대 국난’을 맞아 성공적인 산업혁명 전환으로 극복, 혁명적 열정을 분출하여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 식민지 없이 자수성가,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최초의 국가

(표 1) 대한민국 시대교체

산업혁명	국난	혁명	정치 재편성
1·2차 산업혁명	1950년 6.25 전쟁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쿠데타	산업화 개도국
3차 산업혁명	1997년 IMF 외환위기	1987년 6월 항쟁,	민주화 선진국
4차 산업혁명	2020년 코로나 국난	2016년 촛불혁명 2024년 ‘빛의 혁명’	선도화 행복국가

- 6.25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4.19 혁명의 절규는 ‘잘살아보세’라는 국민적 에너지로 결집, 절대빈곤의 후진국 탈출
- 5.16 쿠데타에 이은 권위주의적인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초고속 개발도상의 중진국 성취

11) 이진복. <기본사회와 혁신경제 : 정치교체와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민주연구원, 2024.10.25.)

12) James L. Sunquist.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Alignment and Realign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Brookings Institution, 1983)

- ‘민주쟁취, 독재타도’의 6월 항쟁으로 민주화 쟁취, IMF 외환위기를 대한민국 관치경제 청산, 지식기반경제 실현의 기회로 대전환
  - 민주당은 ‘민주화 정당’일 뿐 아니라 ‘정보화 정당’.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빠르게 추진, 복지국가 지향,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고 선진국 실현
- ‘이게 나라냐’는 2016년 촛불혁명의 빅퀘스천에 ‘나라다운 나라’로 응답.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 윤석열의 12.3 내란에 대한 온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응답, 행복국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온 국민의 꿈
- ‘1차 한강의 기적’이 절대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잘살아보세’였다면, ‘2차 한강의 기적’은 민주화와 함께 정보화와 복지국가를 이루는 ‘더불어 사세’의 선진국 실현
  - 이제 추격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 선진국을 넘어 행복국가를 실현하는 K-시대 개척, ‘더불어 잘 살아보세’의 ‘3차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
  - ‘선도화’ 전략은 기존 추격 전략인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강점을 간직하면서 선진국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을 융합,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최초의 질문으로 답을 찾는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

## (2) K-시대

### ○ K-행복 트렌드

-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물질적 부를 넘어 물질양면의 ‘행복’을 중시하는 신중산층의 세계관이 이미 주류 트렌드 형성<sup>13)</sup>
  - 4차 산업혁명의 고부가가치 행복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대중, 골드칼라, 화이트칼라, 벤처·중소기업인 등이 신중산층 핵심 형성
  - 투자의 개인화·대중화 시대. 4차 산업혁명 혁신 기회의 폭발과 함께 재미와 의미, 성공이 융합된 크리에이터 슈퍼스타의 대중적 출현
  - 일과 놀이가 융합, 놀듯이 일하는 성덕(성공한 덕후)의 행복한 삶이 신중산층의 꿈

13) 김민희. <다정한 개인주의자 : K-컬처를 다진 조용한 실력자 X세대를 위하여> (메디치미디어, 2022), 송길영. <시대예보 : 핵개인의 시대> (교보문고, 2023),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Basic Books, 2019)

- 양자택일과 극한대결을 혐오하고 위선과 끈대에 대한 본능적 저항, 기득권과 무임승차를 멀리하며 도전정신과 모험심을 발휘하는 진취적 자세
- 잘 살고자하는 온 국민들의 행복추구 열망 폭발. Well-Bearing(잘 낳음), Well-Being(잘 삶), Well-Aging(잘 늙음), Well-Dying(잘 죽음)의 '100세 시대' 전생애 행복추구 K-뉴트랜드
- '9988234' 행복 라이프의 꿈(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2. 3일 고생하고 죽는 행복 인생)
- 행복을 미루지 않는, 내 삶을 표출하여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되돌릴 수 없는 뉴트랜드 스타일리시 라이프

#### ○ K-행복추구 트렌드

- 행복추구 라이프스타일은 2030에 국한되는 뉴트랜드가 아니라 5060까지 관통하는 온 국민 트렌드

##### ① 2030 뉴트랜드

- 진보와 보수의 그릇된 이념적 고정관념, 양극단 2030세대觀을 넘어 현실 그대로의 진짜 트렌드, 2030觀 절실
- 진보는 2030세대를 좌절하는 청년의 '3포세대', 해법은 떠먹여주는 정부의 결과보장. 공시족 어필
- 보수는 오늘날 사는 개념없는 청년의 '올로족'. 해법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하는 시장. 금수저 어필
- 현실의 다수 청년은 정부의 보장도 믿지 않고 이름만 경쟁인 불공정 시장도 믿지 않는, 진짜 공정한 경쟁 기회 열망. 자신만의 방과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로 인한 체화된 자유
- 대한민국 뉴트랜드를 선도하고 있는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청년, 롤러코스터 라이프스타일, 성덕(성공한 덕후)의 챌린지 세대
- 소득과 자산을 넘어 자신의 몸, 스타일, 캐릭터, 관계까지 모든 것에 투자, 단군 이래 가장 잘 준비된 글로벌 세대. 공정경쟁 열망 성투세대. 성공의 목적은 행복. 성투는 행투
- 루저도 되기 싫지만 승자독식도 혐오. 진입장벽의 결과보장이 아니라 재도전 공정 기회 보장 열망
- 어설픈 위로나 하는 위선적 멘토나 나때는 말이야 강요하는 끈대가 아니라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진짜 리더십 갈망
-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의 시대에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정직한 리더십 갈망

##### ② 5060 뉴트랜드

- 100세 시대의 5060세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기존의 '실버세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뉴실버세대'



- 과반에 이르는 5060 생활인은 시끄러운 소수의 과거 운동권 습성을 가진 586이 아니라 'A세대'. '오늘은 내 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 "A세대는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고,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오피니언 리더로서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기존 실버 세대와는 다른 '에이스'적 면모를 보이는 50~69세 소비자들을 의미한다."
- A세대는 MZ세대 못지않는 '스마트 라이프'. 인생 2막을 시작한, 멋지게 사는 '그레이트 그레이'이자 인생 3막을 준비하는, 인턴으로 들어가 멘토가 되려는 '멘턴(Mentern·Mentor + Intern)'
- A세대의 특성(A세대는 5060 세대의 47%)
  - 나이를 초월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은 욕구(Ageless)
  - 가치 있는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Accomplished)
  -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구(Autonomous)
  - 자연스럽고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은 욕구(Attractive in my own way)
  - 생기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Alive)
  - 경험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존경·존중받고 싶은 욕구(Admired)
  - 성숙하고 수준 높은 나만의 취향을 가지고 싶은 욕구(Advanced)(조선일보, 2022.2.25.)

- 100세 사회는 꿈이 아니라 현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2023년 기대수명 83.5세)은 2030년 세계최장수국

#### ○ 세계최장수국 대한민국

- 2030년생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로 90살이 넘는 유일한 집단, 남성의 기대수명은 84.07세로 세계 1위
- 한국인의 기대수명 증가세는 압도적, 2010년 세계 19위에서 단숨에 세계 1위로 뛰어오름
  - 2010년생 기대수명은 한국 여성 84.23세(세계 6위), 남성 77.11세(19위). 그런데 2035년생 여성은 기대수명이 6.59세 늘어 수명연장 폭 세계 최고. 남성도 6.96세가 늘어 수명 연장 폭이 헝가리에 이어 2위(한겨레, 2019.10.19.)

- 인간 행복의 제1 요소는 장수.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100세 사회는 행복 관점에서 축복
- 전통적으로 장수는 행복의 다섯가지 요소, 오복(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 중 으뜸
- 기대수명 100세 사회가 되면서 평균수명과 행복수명의 격차를 줄이는 과제가 행복국가의 제1일 과제로 등장<sup>14)</sup>

14) 민병두. <웰빙이 아니라 웰리타이어링이다 : 초고령 시대 대비 사회 설계 전략> (비타메아타, 2019), 민병두. <백세시대의 사회를 재구성한다> (뉴스트데이, 2024.10.28.)



- 행복수명은 건강수명, 경제수명, 활동수명, 관계수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오복수명’
- 여생이 아니라 100세 본생이 가능한 평생활동, 평생학습, 평생유희 융합 ‘인생 이모작 시대’. 부모 밑에서 30년, 독립하여 일모작 30년, 이모작 40년 인생주기
- 세대간 분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이모작 시대를 열어 100세 행복수명 실현<sup>15)</sup>
  - 문제는 인구 부양비(dependency ratio).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현상이 아니라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문제의 핵심. 저출산 대책의 정책 목표를 ‘출산율 회복’에서 생산 가능인구 비율을 늘리는 ‘인구 부양비 개선’으로 전환
  -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일모작 사회에서 청년과 중장년이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이모작 사회로 전환
  - 젊은 층은 창의성과 연관된 계산력·공간력·추리력 등 유동지능(Fluid Intelligence)이 높아 과학·첨단기술·회계·산업디자인 등의 일모작 직업에 적합한 능력
  - 경험과 경륜이 쌓인 중장년층은 배려심·이해심·판단력·인내력 등 결정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이 필요한 행정·관리·헬스케어 등의 이모작 직업에 적합
  - 고령자도 결정지능을 필요로 하는 이모작 직업에서는 청년 못지않은 생산성 발휘. 청년들이 일모작 직업으로 가면 중장년이 이모작 직업을 가질 수 있음
- K-행복 뉴트렌드는 행복추구 스타일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행복을 재정의 하고 감성을 살리는 힙한 패션화
  - 과시욕으로 변질된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넘어 원포인트업을 추구하는 평범한 일상 추구,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 트렌드로 발전

○ 2025 뉴트렌드<sup>16)</sup>

①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

- 행복담론 변화. 소확행 강박에 대한 피로이자 반발
-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은 기본으로 깔려야 하는 가장 안온한 안전지대
- 특별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일상,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일상,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
- 남에게 과시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 인정보다 긍정
  - “행복을 쫓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미있는 작업에 몰두할 때, 더 높은 목표를 쫓을 때,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 그래서 더 이상 행복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15)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 : 국가경제를 이모작하라> (삼성경제연구소, 2013), 김태유, 김연배. <한국의 시간 : 제3차 대분기 경제패권의 대이동> ( 쌤앤파커스, 2024)

16)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5> (미래의창, 2024)

## ② 원포인트업

-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실천가능한 나만의 밸류업 커리어
  -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계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일반화된 성공 공식을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장 '나다운 성공'
  -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조금씩 성취감, 도달가능한 한 가지 목표
  - 큰 결과를 가져오는 1퍼센트의 변화
  - 내가 멈춰있지 않다는데서 오는 마음의 안정감

- 행복은 성장과 분리 불가능. 개인에게 성장은 점점 더 중요한 이슈. 성장의 의미가 집단의 '성장'에서 개인의 '자람', '나만의 밸류업 커리어'로 전환<sup>17)</sup>
  - 열심히 일하는 시대에서 나다운 일을 찾아 잘하는 '일잘러'의 꿈, '나다운 성공'을 꿈꾸는 '나다운 성장'
  - 삶의 선택의 자유는 행복추구의 본질.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상황, 대체가능하지 않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성장

## ○ K-이니셔티브

- 행복국가는 'K-시대' 실현. 온 국민의 K-행복 트렌드 확산, 진영의 한을 푸는 국내 중심 자폐적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높아진 자긍심에 기초, 온 국민의 흥을 복돋는 코리안 드림
- 'K-시대'는 '선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글로벌 초격차와 모범을 통해 행복국가 실현 국가비전
  -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 행복국가는 추격하는 개발도상의 '중진국(developing nation)'과 추월한 이미 발전된 '선진국(developed nation)'을 넘어 글로벌 표준을 재설정하는 '선도국가(leading nation)' 비전
- K-시대는 이미 여러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프론티어를 개척하고 있는 'K-이니셔티브'의 혁명적 확산
  - K-이니셔티브의 단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일신하고 있는 'K-브랜드'

17) 송길영. <그냥 하지 말라 :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북스톤, 2021)

- 세계인이 감탄하고 ‘국뽕’을 만끽하는 ‘K-이니셔티브’는 글로벌 플랫폼을 기반으로 K-행복 트렌드 반영. K-기술, K-제품의 품질과 함께 K-팝·필름·드라마 등 ‘K-컬처’를 포괄하는 K-브랜드의 글로벌 파급효과
- 세계적 각광을 받으면서 “K-”자가 웹스터사전에 실릴 정도, 한류를 위시한 K-브랜드 (K-팝, K-드라마, K-무비, K-콘텐츠, K-뷰티, K-푸드, K-가전, K-방산, K-스타트업, K-유니콘 등)의 글로벌 유행

### 3 행복정치

#### (1)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

##### ○ 공감정치

- 사회갈등 해결 없이 행복국가 실현 불가능. 대한민국은 갈등을 극단화하는 ‘세계 최고 갈등공화국’

##### ○ ‘세계 최고 갈등공화국’

- 통계청 발표 2024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12.3 내란사태 미반영에도 보수와 진보 사이 사회갈등이 삼각하다는 비율이 77.5%(한겨레, 2025.3.25.)
- 2018년(100)부터 2022년(178.4)까지 갈등관련 언론 기사와 소셜미디어 언급량 빅데이터 분석, 4년 동안 한국사회 종합갈등 지수는 누적기준 거의 2배로 높아짐(동아일보, 2022.4.11.)
- 국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조사 결과(2020년 12월23일~2021년 1월 8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문화전쟁을 겪고 있는 국가
  - 정당 지지자들 간의 갈등(91%),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87%),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갈등(91%), 남녀 갈등(80%), 대졸자와 비대졸자 간 갈등(70%), 종교 간 갈등(78%)에서 1위 갈등 국가(한겨레, 2024.6.29.)

-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지 않고는 행복국가 실현은 불가능, 특히 12.3 내란사태 이후 두 국민으로 분단된 사실상 헌정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
- 정치가 여의도의 정쟁을 넘어 광장의 집회로 대체, 문제악화를 넘어 사실상의 내전을 선동하는 단계로 전락

- 12.3 친위 쿠데타와 1.19 서부지법 폭동 등,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를 목도하고도 30%대 고정 지지자를 받는 양대진영으로 갈라진 정치지형 불변
- 80%대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했던 촛불혁명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이 50%대에 그쳤던 상황
- 정치교체 없는 정권교체는 극단의 정치를 증폭시키고, 진영의 적대적 공존을 심화시켜 현재의 헌정위기 국면을 지속시킬 가능성
- 국민통합 공염불이 아니라 온 국민의 신바람 ‘더불어 잘 살아보세’, ‘헬조선’의 한을 대한민국의 흥으로 승화시키는 정치교체 필요

(표 2) 대한민국 정치교체

정치 패러다임	공감 정치	존재감 정치
타깃 유권자	조용한 다수	시끄러운 소수
정치전략	확장력	동원력
정치행태	和而不同	同而不和
정당유형	스마트파워 정당	하드파워 정당

- 극단의 정치를 강행하는 민심불감, ‘존재감 정치’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공감 정치’로 정치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존재감 정치는 비관적 절망에 빠져 한과 냉소를 심화시키면서 욕구충족을 위해 혼자 튀어보려는 자폐적 ‘관중(관심중자)’ 정치
- 공감 정치는 낙관적 희망을 갖고 흥과 열정을 고취시키면서 여민동락을 지향하는 행복 정치
- 시끄러운 소수, 극성 지지자에 영합하는 진영의 정치를 극복하고,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행복 트렌드를 직면하는 온 국민 정치로 전환
-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중도는 없다’, ‘무당충은 샤이 정당 지지자’를 강변하면서 51% 대한민국, 1%차 승리 추구. 고정 지지층의 동원력 최대화, 온건 유권자의 정치혐오 심화
- 조용한 다수의 정치는 100% 대한민국 추구, 선거승리는 국민통합 과정. 정치의 신뢰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감대를 넓히는 확장력 최대화

- ‘하나라도 다르면 적’, 같으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몰상식한 소인배의 동이 불화(同而不和) 정치에서 ‘하나라도 같으면 친구’,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화해하는 대인배 군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치로 전환
  - 소인배의 동이불화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 타협을 배신으로 적대시하고 정치를 종교화, 끊임없이 갈라치기하는 문제유발 차별화 정치
  - 군자의 화이부동 정치는 ‘한 걸음 더 전진’, 그릇된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국익과 미래의 관점에서 더불어 전진하는 문제해결 진취적 실용 정치
- ‘닥치고 돌격’, 기세를 내세우며 몸으로 때우는 실력행사 위주 하드파워 정당에서 대세를 직시하며 싸울 땐 싸우는 하드파워와 덜할 땐 덜하는 소프트파워를 겸비한 유능한 스마트파워 정당으로 전환
  - 하드파워 정당은 극소수 극렬 비정상 집단에 포로로 잡혀 극단적 증오와 망상에 빠져 보통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싸 정당(outsider party)’으로 타락,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는 비정상 정당으로 낙인
  - 스마트파워 정당은 평범한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공감대 속에서 온 국민과 어울리는 ‘인싸 정당(insider party)’
- 스마트파워 정당은 온 국민의 응원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선수, K-정당으로서 행복국가의 K-시대 개척
  - K-정당,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서 Low Level의 이전투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Next Level 선도, Another Level, High Level 정당임을 증명. ‘대표선수는 주장하지 않고 증명’
- 일상행복 ‘스몰딜’과 구조개혁 ‘빅딜’과 창조적 파괴 ‘뉴딜’이 만발하는 흥미진진 대한민국, 세계최초 행복국가 선도<sup>18)</sup>
  - 행복추구 비무장지대 확대, 행복을 실감하는 소확행 ‘스몰딜’의 타협을 일상화하고,
  - 당사자는 꺼리지만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담대한 ‘빅딜’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행복조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 창조적 파괴를 지향하는 최초의 질문에 응답, 도전하는 ‘뉴딜’ 병행, K-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K-시대 개척
  - 이제 모방이 아니라, 창조, 추적이 아니라 개척을 통해 벤치마크가 없는 화이트 스페이스에 길을 만들어야

18) 이정동. <최초의 질문 : 기술 선진국의 조건> (민음사, 2022)

- 행복정치는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행동강령, 누구나 실천하는 행동수칙으로 정립, 일상적 행복정치를 실천해야
- 국민통합과 평화, 품격과 특권해소는 그 자체 국민행복의 원천. 국민의 정치혐오를 심화시키는 각종 꼴불견 정치행태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국민 개개인의 심적 행복감을 보호하고 촉진

#### ○ ‘뉴파티 실천 10계명’

- 2016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의 ‘뉴파티 실천 10계명’은 비록 실패했지만 행복정치의 벤치마킹 모델. “당의 나쁜 문화와 고질적 병폐가 국민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안겨드렸음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정당(Old Party)에 대비되는 당의 일대 혁신을 위한 행동강령” 발표
- 1.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막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 2. 보통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정치방언을 쓰지 않겠습니다.
- 3. 보좌진의 월급 갈취나 편법 사용, 책 강매, 우산·가방 들게 하기, 공무원 막 대하기 등 정치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 4. 선거 때에만 얼굴 비추고, 끝나면 외면하는 속물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 5.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만 밥 먹고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 6. 어떠한 명분으로든 인사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7. 파당을 만들어 우리끼리 불쌍사나운 싸움 하지 않겠습니다.
- 8. 닥치고 반대만 하지 않겠습니다.
- 9. 패권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 10.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 ○ ‘잘사니즘’

- 행복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일 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공유하는 핵심가치
-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기한 행복론적 근대 헌법(eudemonistic constitution)
- 민주당은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강령에 명시, 국민의힘 또한 강령에서 ‘행복’을 가장 중시

### ○ 대한민국 헌법에서 행복의 가치

- “우리와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대한민국 헌법 前文)
-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 ○ 행복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유하는 핵심가치

- 민주당은 강령에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제시
  -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를 추구한다.”
  - 행복국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이 될 것을 다짐
  - 13대 정책목표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와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명시
- 국민의힘 강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의 믿음’에서 ‘행복’을 정식화
  -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 “우리는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10대 약속’, 첫 번째 약속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행복국가, “진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
  - ‘진짜 대한민국’은 내적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고, 외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K-Initiative), 세계선도 국가
- 이재명 대선후보의 ‘잘사니즘’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국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행복정치
  - 잘사니즘의 방법은 실용주의 + 신속성. 이념이 아니라 유용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최대한 빨리 일을 처리해서 행복 실감조성



## ○ 이재명 대선후보의 ‘잘사니즘’

## - 잘사니즘

-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 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 - 실용주의 + 신속성

- “그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나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한다.”
-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니 작고 쉽고 간단하게 보이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운다. 그렇다고 큰 일을 안 한 건 아니예요. 그건 그것대로 고심하고, 저는 제 업무 책상에 서류가 쌓여 있지 않아요. 안 쌓아 놓습니다.”

## - K-이니셔티브(세계주도)

-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습니다.”
- “우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 진짜 대한민국

-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있죠.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흰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죠.”
-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민주당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2025.4.10.)

## -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미 올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 먹사니즘의 민생정치에서 잘사니즘의 행복정치로 강세 이동, ‘민생’은 국민의 ‘생계’를 포함하는 행복한 ‘생활’ 향유
- 민생과 행복은 양자택일 대체 관계가 아니라 필요충분 관계. 민생은 행복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행복은 민생이 나아진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 12.3 내란에 맞서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 잘사니즘이 지향하는 행복국가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펴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
- 잘사니즘을 실천하는 ‘행복정치’의 핵심은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하다면 총동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이든 수용할 것”을 다짐
- ‘행복정치’는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로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

#### ○ 이재명 대표의 ‘잘사니즘’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행복국가를 실현하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펴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띄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하다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5.2.10.)

## (2) 행복정책

### ○ 행복실감 정책

- 행복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장과 복지 정책을 행복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행복정책 필요
  - 경제성장은 행복을 포괄하지 못하지만 행복은 경제성장을 포함. 경제성장과 낙관적 전망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본질적으로 행복경제를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는 행복국가의 기반
  - 복지는 행복을 포괄하지 못하지만 행복은 복지를 포함. 물질적 복지를 넘어 물심양면의 행복증진을 위한 100세 행복수명 실현은 행복국가의 기반
- 누구나 동의하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국민행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교착상태 밑에서 활약하는, 진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아래로부터의 생활밀착 리더십 주목
  -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쟁으로 정치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정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행복추구 비무장지대, 모범적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가 중요
  - 행복실감 정책은 미시적 생활정책에서 시작. 국민의 행복 트렌드에 훨씬 민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복정책 모범사례를 발굴·육성해야
  - 세계행복보고서 순위 상위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1천만 이하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소국임을 유의
- 행복실감 정책은 주관적 심리상태에 초점, 국민적 불행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고 행복감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섬세하고 신속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체감도 향상
  - ‘행복’이란 궁극적으로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에게 행복감을 주입할 수 없다는 전제로부터 출발
  - 행복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 실현 정도와 연관된 내 삶의 주관적인 심리상태. 특히 질병예방에 초점을 맞춘 공원·운동·레저 시설 확충과 생활 카운슬링을 포함한 멘탈케어 서비스 확대 및 정신질환을 커버하는 건강보험 개혁 절실
  -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로막거나 파괴하는 각종 고충과 불행요인을 제거하면 즉각 행복 실감
  - 행복실감 공급의 측면에서 더 섬세한 사람의 터치와 더 편한 최신 기술 적용을 통한 업그레이드, 찾아가는 능동적 서비스는 행복 실감 제고
  - 행복실감 수요의 측면에서 100세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분출하는 새로운 행복 수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은 또한 행복 실감 제고

## ○ 행복조성 정책

- 행복실감 정책이 밑으로부터의 미시적 생활 정책이라면, 행복조성 정책은 국민적 행복을 증진하는 위로부터의 거시적 생태계 정책
  - 행복조성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 실현을 목적, ‘방침’ 규정으로 남아있었던 ‘행복 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행’ 규정 법률화
- 행복조성 정책은 4차 산업혁명 + 복지국가 업그레이드 + K-시대 실현을 통한 전면적 행복국가, ‘더불어 잘 사는 글로벌 초일류 국가’ 지향
  - 행복경제를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초일류 국가혁신생태계 구축
  - 물적 복지를 넘어 가족·직장 양립 워라벨, 인생2모작 실현 100세 시대 전생애 행복보장, 동포애적 국민화합의 신복지사회
  - 선진국을 넘어 선망국을 실현하는 백범의 꿈, ‘가장 아름다운 나라’, 스마트파워 강국 대한민국의 K-시대 지향
- 포괄적 행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민총행복기본법’은 행복조성 정책의 시작이자 행복국가 실현의 토대<sup>19)</sup>
  - 국민총행복기본법은 국민행복을 국가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
  - 국민의 불행만 야기했던 그릇된 진영의 고정관념을 혁파하기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생활인이 실감하는 ‘국민총행복지수’ 향상에 초점
  - 행복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를 보장, 범국민적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초당적 ‘기본계획’ 수립과 창의적 ‘시행계획’ 집행 가능

### ○ 국민총행복기본법

- ‘국민총행복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윤호중 의원 등 39인)을 확대·계승한 기본법
  - 국민총행복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법은 주로 국정의 중요분야에서 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 지시하는 법률,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정책방향 등을 규정
-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지방정부 차원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단법인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 발표

19) 이재경. 〈국민총행복증진법 입법 방안〉(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25.3.20.)

-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한다!”
- “‘국민총행복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향후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 각 당의 공약으로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 “‘불행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역설을 극복하고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한다!”(〈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특별결의문〉, 2025.3.20.)

---

## 행복국가와 시대교체 : ‘잘사니즘’의 행복정치